

## 다문화 담론과 기독교 지식인의 책임

김 광 현(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 I.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인가?
- II.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 상생
- III. 타문화 이해에서 다문화 이해,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으로
- IV. 세계시민의식과 기독교지식인 책임
- V. 나오는 말

---

• ABSTRACT •

---

As we have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since we have more than 1,1 million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 regarding foreigners' human rights and multicultural education.

'Learning to live together' in the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UNESCO has been a great help to develop an international vision fo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Understanding foreign cultures' which is a them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ims the harmony of one society and the peaceful education for the world civilians. In order to strengthe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since 2000, UNESCO has performed it through disseminating 'a Culture of Peace' with five themes, 'Globalization issue', 'Peaceful World', 'Respect human rights',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pecially, multicultural understanding contains mutual respect and prejudiced discrimination. This is because when all the representatives of the countries made a decision for the certain policy, third world influenced them to reflect human rights for the minorities, peace, respect and so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s one of important areas of education for the world peace, at which UNESCO has taken aim. UNESCO started using the term of international education based on its educational concern and it has expressed peace education, human right education, world civilian educa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 on. And at 2001, it published the rule book fo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with the <Declaration of UNESCO world culture diversity>. UNESCO has used a term 'multicultural education' meaning intercultural education as well.

We have ignored and not made serious efforts to materialize 'World inside Korea' so far compared to make efforts to materialize 'Korea inside World'. Diversity of the cultures, languages and religions in Asia and World is the important property and potential motive for the creative future. It is also an important social capital to actively solve the global issues and to contribute partnership, cooperation and harmony to asian region as well as world stage. Korean people will develop a balanced awareness of world civilians and be in-

---

spired with their pride as world civilians through Korean education fo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s well as one for the asian understanding. Foreigners are also equivalent members of our society. It will induce Korean to transform a sense of value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Once they got out of the nationalistic view of thinking in a narrow sense, they will admit them as members of our society. That will be a foundation for bringing up persons with new global creativity. In order to raise up a national brand status, education fo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educating world civilians dealing with world-wide issues are necessary. Social ethics is one to pursue change in our society. Ethics of the christian society not only explain the world, but also transform the society. Ethics of the community will be layed on the responsibility for our neighbors and solidarity with our neighbors, Christian educated people are responsible for the pursuit of our common virtue of world civilians such as peace and justice, love and living together and for exerting and practicing them. "World is a Multicultural Society." If we will promote a Global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model in Korea will be set up in the right direction.

**Key Words** : unesco, multicultural education, ethics of the christian society, Learning to live together,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

## I.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인가?

한국사회에 이주민이 많이 ‘전입’된 것은, 경제적 세계화로 인한 국제이동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풍요로운 삶을 찾아서 저발전 국가로부터 선진 산업국가로의 인구유입은 이 시대에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미래학자들은 한국사회가 저출산율로 인해 2050년이 되면 총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생산인구도 줄어들게 된다고 예측한다.<sup>1)</sup> 서구가 겪는 과정이 한국에서 되풀이 되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이전 식민지 및 터키 등에서 이주민들이 그 사회 주변부에서 일을 해왔다. 더구나 그들은 2~3세로 유럽지역에서 남아있게 되면서, 그 나라 국민으로 동화되어 갔다. 우리도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증대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서 다문화 인구가 늘게 되었다. 그들은 10년 전부터 한국에 와서 정주하게 되었고, 그들의 2세들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으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그들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110만 시대를 맞아 다인종·다민족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주자 인권,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sup>2)</sup>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다문

---

1) 2018년 인구감소가 되어가고, 이런 추세로 진행된다면 30년 후 우리인구는 5만이 된다는 통계도 있다. <국토연구원>은 2050년이 되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명중 1명이라고 예측한다. (09.5.1)

2) 이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경제적 세계화로 인하여 상호의존성이 강화되면서, 이주는 연간 400만 명으로 본다. 예로 2008년 12월 기준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는 총인구의 1.74%였다고 한다(일본 후생노동부 2009년 자료). 이러한 비율은 한국의 외국인 비율 2.2%, 국제결혼 비율 11.1%에 못 미치지만, 일본사회도 다양한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화사회라고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외국인들이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세계화로 인해 많이 오기는 하지만 그들이 경제적 영향으로 한국에 정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8만 명이나 된다. 이런 이행단계에서 ‘다문화’는 모호한 개념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개념은 한국인 남녀와 결혼한 외국인 남녀가 구성원이 되는 것이 ‘다문화’이다. 정부부처마다 쓰는 용어들이 상이하다. 법무부에서는 ‘이주민’, 교과부와 보건가족복지부에서는 ‘다문화 가족’으로 쓴다. 무조건 단지 외국인 한명이 섞여있으면, 다문화가족인가! 한국인과 외국인 남녀들과 결혼하면 다문화가족인가? 다문화에 대한 정의는 혼재되어 있다. 다문화는 여러 유형(인종, 민족, 종교, 성별, 성 취향)의 이질적인 문화가 하나의 제도권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3)</sup> 이런 다문화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미국과 캐나다처럼 국가 출범 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유된 형태이고, 둘째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근대화 및 세계화로 인해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통해 형성된 형태이다. 한국은 서구유럽 국가와 유사하게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과 1990년대 이후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라 나타난 결과 형성된 ‘다문화사회’이다. 우리의 ‘다문화화’는 ‘이민 또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이 이주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집단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 민족국가(nation-state)안에 서로 다른 문화 종교 공동체가 공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화에는 관용, 배려, 돌봄(care)이라는 가치 용어들이 기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이나 교육은 한 사회 내부에서 다

3) Dilger, S. C., Developing policy and programs for multicultural art education: Curriculum and instruction responsive to cultural diversity. *Art Education*, Vol.47(4), 1994, pp.49~53.

른 문화의 이해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한글교육, 한국문화교육 등 동화(assimilation)주의적 교육에 치우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선진국을 보게 되면, 이주민의 정체성이나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문화적 불평등은 앞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체제 내에서의 국가 간 교류와 이주급증에 따라 세계체제 이해, 인권, 평화를 연결시킨 ‘국제이해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소수 이주민 집단만을 배려한 특별교육을 넘어서 그들이 자조(自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다문화교육 이론의 모태가 된,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이 탄생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 다문화교육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 국제이해교육의 영향을 보고,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에서의 기독교신인의 역할과 과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 II.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 상생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의 ‘더불어 사는 교육’은 한국의 다문화교육에 국제적 시각 전개에 일조를 할 것이다. 국제이해교육의 한 주제인 ‘타문화이해’는 한 사회의 조화와 평화로운 세계시민교육에 목표를 맞추고 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는 유네스코헌장 전문에서 전쟁 없는 평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염원을 볼 수 있다. 평화가 유지되지 않고서는 인권, 발전,

과학기술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이 선언은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의 모표가 되었다.

1925년 장 피아제(Jean Piaget), 막스 플랑크는 전쟁에 대한 폐해를 막고자 국제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지식인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한다면서, 상대방 국가의 문화를 비방하고 폄하하는 데서 전쟁의 원인이 배태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상대국가의 역사, 문화 등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교환하고 이해하기 위해 국제교육센터(IBE)를<sup>4)</sup> 설립한다. 그들은 국제교육에 ‘이해(understanding)’를 넣음으로써, 관용과 편견차별, 민주주의의 개념적 요소를 넣어 ‘국제이해교육’을 만들었던 것이다.

1974년 유네스코의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에 관련된 교육” 권고문은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타문화 이해, 국제적 상호의존, 글로벌 이슈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자는 것이다.<sup>5)</sup> 단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타문화에 대한 존중, 편견차별을 하지말자는 교육이다. 국제이해교육은 이런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의 석학 및 전문가들인 모인 〈유네스코 21세기 교육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는 1999년 들뢰르 보고서(Delors Report)에서 ‘더불어 사는 교육’을 21세기 교육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의 4대 기둥(four pillar)은 다음과 같다.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더불어 사는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유네스코는 이런 과제를 통해 결국 ‘더불어 사는 학습’, ‘함께 사는 학습’을 통해

4) 국제교육연구센터의 현장에는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이 평화를 달성하고 인간을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고 해서, 평화를 위한 국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 국제이해교육의 기본원칙인 이 선언은 당시 제3세계국가의 독립에 따라 폭넓은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권존중 및 기본권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평화의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6)</sup> 이런 평화의 문화 구축을 위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는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하다. 다문화주의는 찰스 테일러의 말대로 이해를 통한 ‘인정의 정치’가 필요한 장치이다.<sup>7)</sup> 21세기의 교육의 과제에 ‘더불어 사는 학습’을 추가한 이유는, 앞으로는 세계에서 상호의존성과 문화다양성을 배우게 하여, 다른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히 여기게 함으로써 문명 간·문화 간 갈등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2000년부터 유네스코는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자, ‘평화의 문화’ 확산을 통해, 5가지 주제 ‘세계화 문제’, ‘평화로운 세계’, ‘인권존중’, ‘다문화 이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국제이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이해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편견차별 철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모든 세계국가 대표들이 모여서 정책결정을 할 때, 제3세계의 입장을 고려한 소수자의 인권, 평화, 존중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문화이해는 유네스코가 목표로 하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분야이다. 이러한 교육적 관심은 국제교육에서 시작해, 평화교육, 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등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과 함께 다문화교육을 위한 유네스코 지침서를 내놓기도 하였다.

유네스코에서는 문화 간 이해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 다문화교

6) Jacque Delors,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UNESCO Publications, 1996. 지금까지 교육은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식을 힘으로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전인적 인간이 되기 위해 학습해야 한다고 했다. 들뢰르의 선언은 이런 기반에 21세기에 ‘지구촌’을 염두에 두고 세계인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드는 교육을 주창한 것이다.

7) C.Taylor,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 press,1992.

육(Multicultural Education)을 다문화교육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sup>8)</sup> 북미에서는 이런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으나 유럽에서는 구분해서 사용한다. 다문화교육은 한 국가에서 여러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반면, 문화 간 이해 교육은 두 개 이상의 문화권 사람들이 서로 상호교류를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한다. 여기서 필요한 학습은 고차원의 사고력 증진과 상호협동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그 대상이 한 국가인가 다중의 국가인가에 의해서 분리된다고 보면 된다.

다문화 이해(multicultural understanding)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 간 이해(intercultural/cross-cultural understanding)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다문화 이해가 서로의 문화가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타 문화의 수용을 강조한 것이라면, 문화 간 이해는 차이점보다 상호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을 강조한다.<sup>9)</sup> 따라서 문화 간 이해는 문화의 보편성을 더 강조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서 여러 민족과 인종이 상생하는 데 큰 일조를 할 것이다.

지구촌의 상호간에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 갈등이 발생하여 왔다. 이에 인류는 이러한 문화 간 갈등을 해결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으로서 문화 간 이해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 간 이해 교육은 자민족중심주의, 인종주의, 편견 등 다양한 모습의 전체주의를 극복하는 교육의 역할을 할 것이다. 문화 간 이해 교육은 향후의 교육정책을 이끌어 갈 세 가지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8) 1986년까지 다문화교육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 과거에는 ‘문화 간 이해교육’, ‘문화다원주의’로 표현하면서 캐나다나 미국의 사회현상으로 간주했다. 1989년 옥스퍼드사전에도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개제되지 않았다. 네이션 글레이저,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서종남, 최현미역),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09, pp.33~34 참조.

9) 김현덕,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국제이해교육의 역할』, 『다문화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 아태교육원편, 동녘, 2009, P.136 참조.

원칙1 : 문화 간 이해교육은 문화적 적합성과 상응성을 갖춘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한다.

원칙2 : 문화 간 이해교육은 적극적이고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에 필요한 문화적 지식, 갖추어야 할 태도 및 능력을 학습자 개개인 모두에게 가르친다.

원칙3 : 문화 간 이해교육은 모든 학습자가 각 개인 간, 인종적·사회적·문화적·종교적, 그리고 국가 간의 이해와 존중,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 지식과 태도, 능력을 가르친다. 10)

문화다양성은 그 자체로 역동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유네스코의 문화이념은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제2조에서 민주주의와 창조성을 강조하는 문화 다원주의 개념에 잘 나타나 있다. “문화다원주의는 문화다양성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체제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문화다원주의는 문화교류와 공공의 삶을 유지하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 데 이바지 한다”<sup>11)</sup>. 또한 제5조에서는 ‘문화적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실천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sup>12)</sup> 적시하고 있다. 다문화이해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인들에게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할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이해교육은 ‘약국처방식’의 교육이었고,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사회에 적응케 하는 고민도 필요하지만, 갈등과 적응의 주체인 한국인에 대한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하다.

10) UNESCO, *UNESCO Guide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 pp.33~38 .

1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8, pp.284~285.

1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8, P.285.

### III. 타문화 이해에서 다문화 이해,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으로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은 2001년 문화 간 이해에 주목하고, 다문화 이해(이중문화이해)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해 한국도 세계화교육을 하면서, 3~4년 전부터 다문화이해교육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또한 '신아시아'구상 일환으로 동남아국가와 동반자 정책으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추세이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세계 속의 한국'에서의 구호만 들어왔다. '한국 속에서의 세계'를 인정하는 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만 치중한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보살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며, 세계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생각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정정도로 한국에 적응시키는 교육은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은 그들보다 문화적·인종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시혜나 온정주의 시각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주민들을 온정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이주민들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들의 자녀들에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해야 한다. 이는 이주민들에게 각자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가질 기회를 부여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적법을 개정해 그동안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해서 만22세 되는 해에 이중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것을 완화시켜, 병역 및 영어교사봉사 등을 하면 국적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순수 외국인도 귀화조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고 한다.<sup>13)</sup> 그만큼 고급인력 확보와 고숙련노동자 확보가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본은 예전에 한국계 이주민들이 많이 차지하였으나 지금은 중국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유학생 10만 명 유치계획을 세워 앞으로 일본계 중국 진출 인력을 육성시키는 등,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책을 펴고 있다.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국가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해외 우수인력 확보 및 글로벌 인재 개발로 가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이 ‘인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한 반면, 현 이 정권은 ‘실용적 경제주의’ 입장에서 다문화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한국 주류문화에 동화를 목표로 정책이 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에서 인권과 기본권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실행해야 국제적 차원의 고립과 차별을 피할 수 있다.

김현덕은,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우리 문화에 동화 및 적응할 것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현재 결혼이주여성 자녀교육과 이주자 자녀교육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둘째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화방향이다. 셋째는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자를 융합하는 방향이다. 이주자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한국에 적응하고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재정적, 법적 지원을 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민족우월주의 의식을 완화케 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다문화교육의 방향은 세 번째 방향인 소수자 적응교육 차원을 넘어 자아정체성 함양교육과 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수자 이해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국제이해교육과

13) 조선일보 10월 19일자, <이중국적자, 군대갔다오면 인정키로>

14) 김현덕,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국제이해교육의 역할』, 『다문화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편, 동년, 2009, pp.124~125.

병행해 나가야 한다. 지금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교실에서의 무슬림의 희잡착용, 덴마크의 모하메드 카툰 사건 등은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신민족주의(post-nationalism)’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국가 정책은 탈민족주의적 정책을 펴나가지만, 내부에서는 현실주의, 보수주의를 앞세워 배타주의적 세력이 증대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유럽식 모델에 가까운 한국의 다문화주의도 새로운 형태의 내부에 대한 대비와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주의 정책 목표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인구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는 지구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제이해교육은 앞으로 세계화/전지구화, 이주와 국제이해교육, 문화 간 이해와 갈등, 차별과 인권, 빈곤과 불평등을 하위 주제로 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타문화이해에서 인권존중과 상생을 연결하는 것이 국제이해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주민의 인권보장과 국익 증진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다. 타문화이해(세계 속의 한국)에서, 다문화이해(한국 속의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시민(인류공동체 목표, 인권, 기본권 자유실현, 조화로운 삶)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 IV. 세계시민의식과 기독교지식인 책임

윤리학은 삶과 세계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찾고, 그 가치의식을 인간에게 깨우쳐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의 기독교 지식인의 책임은 인권이 보장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사회정의 실현, 다문화이해, 역사화해, 종교 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칸트는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였다. 한편으로 한스 요나스는 미래를 위한 특별한 하나의 윤리로서, 서로가 타자를 위해 지구를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과 아이들을 위해 지구의 미래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5)</sup>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기독교지식인 및 지도자들은 무슨 희망을 줄 수 있는가?

1986년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시작한 김해성은 외국인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문제와 ‘의식화 교육’ 필요성을 역설한다. 세계산업의 구조와 질서 재편의 과정에 떠밀려가면서 인성과괴가 일어나면서 진정한 평화적 공존의 질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는 다문화인식에 선도적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요즘 한국의 기독교 선교는 상대방의 문화나 종교적 배경을 충분한 이해 없이 전도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선교에는 기독교이념 전파 외에 자민족중심주의, 인종주의, 타종교에 대한 불관용 이념이 들어갈 수 있다. 이는 이주민을 ‘타종교인’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로 보는 태도나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의 첫걸음은 관용에서 시작한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상생이 시작할 수 있다.

관용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상대방과 다름을 인정하고 그 존재를 인정해야 타자에 대한 존중감과 자아의식이 생겨날 수 있다. 관용은 다문화사회에 필수적이다.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R. Benedict)는 인류의 보편성과 개별문화의 고유성 표현을 ‘패턴’이라고 했다. 마치 같은 색실들로 옷감을 짜더라도 서로 다른 무늬를 가진 옷감처럼 문화 역시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지더라도 상이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한

15) 재롬 뱅데, 『가치는 어디로 가는가?: 유네스코, 21세기의 대화: 세계의 지성 49인에게 묻다』, (이선희, 주재형역), 문학과지성사, 2008, P. 434.

다.<sup>16)</sup> 이런 ‘패턴’처럼 관용은 개개인의 독특성과 개별성을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나타낼 수 있는 원천이다. 교회도 무슬림이나 가톨릭, 불교인을 그 자체 고유성을 인정해야 한다. 전도 및 선교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 공통감이나 존재감을 이해하여야 한다. 엘리야 데의 말처럼 ‘삶은 종교’이다.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패턴, 아니 평화의 문화를 증진해야 하는 것이 종교가 가진 장점이 아닌가!

### 1. 타종교인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약자’ 로 인식

교회는 나눔과 봉사의 장이 목적이다. 교회는 소외된 자와 약자를 위해 존립기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관용을 원칙으로 내세워야 한다. 관용은 지구촌 모든 이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기초 원리이다. 불교 및 무슬림과 종교교리로 대립된다면, 상대방을 포용하지 못할 것이다. 종교적 관용과 대화가 평화의 문화를 창조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기독교에서 외국인과의 접촉을 통한 우월감과 개종강요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동남아 이주여성들의 믿는 신앙은 대개 불교도들이 많은 편이다. 그들을 교회공동체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할 것이다. 관혼상제 같은 풍습, 역사적 인물, 종교 등에서 말이다. 그들 문화의 보편성과 우수성을 바라보고, 생활환경에서 나온 관습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그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들은 이중정체성 및 다중정체성을 가진 한국시민이 될 것이다. 한국인의 속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출신국의 속성도 갖게 된다. 타문화와 종교의 정체성과 권한을 인정하려면 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월의식 배제나 문화적, 종교적 연대감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16) 루스 베네딕트, 『문화의 패턴』, (이종인 역), 연암서각, 2008, pp.37~47 참조

또한 섬김과 나눔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동남아 및 아프리카 국가에 학교건설 등 물량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것도 있다. ‘함께 나누는 삶’의 정신아래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봉사사업이고 프로젝트라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주의적 균형감을 갖추지 않은 채, 일방적인 시혜차원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지문화 우월주의에 바탕을 둔 포스트콜러니즘의 형태로 볼 수 있다. 한국은 과거의 식민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바탕으로 ‘서구중심주의’ 및 ‘중화주의’에서 탈피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함께 세상만들기’ 차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 교육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게 진정한 나눔과 봉사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기독교는 한국이다’는 등식을 내면에 갖고 있다. 동남아결혼이주여성들은 시집을 때 남편이 기독교 집안이면 그 여성도 기독교를 믿는다식의 논리를 갖고 있다. 기독교는 민족종교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과거 일본이 ‘탈아입구(脫亞入歐)’정책(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식으로 만들자)처럼 다수자가 바라보는 문화나 교육을 강요하는 일종의 선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일체의 잔흔은 아시아에 ‘군화발자국’으로 많이 남아있다. 우리도 그런 일본의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따라서 아시아를 재조명하고, 아시아와 한국을 수평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문화 및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의 다문화사회 논의의 지형은 여러 문화를 개체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논의에서 끝나고 있다. 다문화 개체들이 역동적으로 힘을 내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자원이 새롭고 역동적인 자원으로 역동성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들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수를 이해하는 것보다 다수인 한국인들과 다수인 학생들이 다문화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것에 보다더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주민은 ‘이중정체성’ 혹은 ‘다중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임시로 혹은

영구적으로 국내 거주이주민을 일방적으로 동화하거나 사회통합의 대상으로만 ‘타자화’할 수 없다. 한국의 기독교는 정착할 때부터 전통종교나 가톨릭에 대한 배타성이 강했다.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인지 동남아이주민들은 불교나 가톨릭 교도가 많다. 그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선교로서는 신도화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들을 인권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종교와 신념을 넘어서 ‘인간’으로 보게 되면 그들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저개발국민은 ‘좀 떨어지는’ 인간으로 취급한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서이지. 그들의 문화나 문명은 자체적으로 우수할 수 있다. 이런 우월감과 편견, 차별을 벗어나서 ‘우리’에서 벗어나 ‘세계’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가치관을 배양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 기독교는 ‘민족종교’에서 벗어나 ‘세계종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 담장을 옮기는 공동체교육

기독교윤리교육의 장은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세계의 장으로 넓혀야 한다. 그 대상은 영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또한 소수자와 장애인 등 인종, 문화, 이념, 종교 등의 차이를 넘어서는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을 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보다 더 접근해야 한다. 이주민들에 대한 인류애, 인권보장, 신뢰, 사랑, 겸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보편적 가치로 접근하고 능동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고민하면서 대화를 해야 기독교 지식인으로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맞는 사람을 돕는 방법도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대화란 사람들간에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하고 이해(understanding)를 확장하는 윤리적 사고의 중심이며 본질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는 사람

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계 이주민들은 한국을 선망의 지역, 무지개의 나라로 생각하고 한반도로 이주해왔다. 우리가 이주초기에 미국을 선망의 땅으로 보다가 ‘공포’의 지역으로 보기 시작한 것처럼, 한국은 인권과 민족적 차별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것은 이주민을 ‘필요성(need)에 의해 유입하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에 대한 가치관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국제화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농어촌지역에서 상대방에 적응하는 요청이 필요해졌다. 서울 및 경인지역인들은 어느 정도 국제화/세계화 준비를 하였으나, 농어촌지역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이주민을 부족한 노동력과 인력충원의 의미로 진행되어갔다.<sup>17)</sup> 그나마 개선된 다문화정책은 이주민과의 ‘상호관계’와 ‘상호의존’에 기초한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 한국사회 구성원이 중심과 주체가 된 일방적 동화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한국인의 가치관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다문화사회를 위한 교육이 결코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 적응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화적 관점을 극복하면서 상호존중과 공존의 위한 문화간이해 교육의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이해를 바탕으로 인정으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기독교가 교회를 울타리를 없애고, 교회와 지역이 함께 하는 공동체처럼, 타민족·타종교인에게 포용적 종교가 되어야 한다. 단지 그들을 미개인, 약자로 인정하지 말고, 그들의 인권보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들을 위한 자립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17) 농촌지역의 인구가 적정수준을 넘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을 목표로 국제결혼을 장려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정주시키게 하는 정책을 펴는 지자체도 많다.

### 3. 다문화를 넘어 세계시민교육으로

2001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문화다양성 선언에 의하면 “문화 다양성의 보호는 인간 존엄성의 존중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윤리적 책임”이라고 하면서, “문화권은 보편적이고 분리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인 인권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sup>18)</sup> 또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언어, 특히 모국어로 자신의 작품을 창조하고 보급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하고, 문화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sup>19)</sup>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 속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상생할 때, 그 사회는 엄청난 창조적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은 그 사회의 문화적 자산을 풍부하게 해줄뿐더러 차이를 껴안고 함께 사는 것을 배우게 함으로써 사회를 성숙시킨다.

이처럼 다문화주의는 시민권 개념의 확대를 의미한다. 다문화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정치적 시민권에서 경제, 사회, 문화 시민권으로의 시민권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민족국가의 경계에 한정되어 있던 시민권의 개념을 전 지구적 차원의 세계시민권(global citizenship)으로 확장시키는 적극적인 인권신장 운동을 의미한다. 세계시민권이란 ‘세계 속에서,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과 더불어, 세계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책임과 권리를 지닌 시민의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다문화교육을 넘어서 세계시민교육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P. 285.

1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P. 285.

## V. 나오는 말

한국사회는 그동안 ‘세계 속의 한국’을 구현하려는 노력에 비해, ‘한국 속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아시아 및 세계의 문화적·언어적·종교적 다양성은 창조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며 잠재적 원동력이다. 또한 21세기의 글로벌 이슈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의 파트너십과 협력, 조화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한국의 다문화이해교육과 더불어 아시아이해교육을 통해 한국인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균형을 갖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게 되리라 본다. 이주민들 역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한국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가치관 전환을 유발,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이들을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접촉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글로벌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국가적 브랜드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다문화이해 교육과 더불어 세계적인 이슈를 다루는 통전적인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윤리는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윤리이다. 기독교사회윤리는 세계를 단지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를 변혁하고자 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의 윤리는 이웃에 대한 책임성, 이웃과의 연대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기독교지식인들의 책임은 평화와 정의, 사랑과 상생의 세계적 시민의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서, 그에 대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세계는 다문화사회이다”. 세계다문화교육(Global Multicultural Education)을 추진해야 한국의 다문화 교육 모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경기도 교육청. 〈오색다문화공동체 워크숍〉 자료집, 2009.
- 김광현. 〈다문화와 애국심〉.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대회보, 2007.
- 모리모 다께오. 〈다문화사회에 있어서의 시민교육의 실천구상〉. 한국사회과교육 연구회, 2009.
- 반륜. 『관용』. 이해정 역. 서해문집, 2005.
- 법무부. 〈한국 이민정책의 동향과 미래의 대응방향〉. 이민정책포럼 대회보, 2009.
- 에이스 저팬. 〈다문화이해와 공생—일본, 한국, 미국 고등학교 교사의 실천의 공유〉. 1998.
-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사회와 국제이해교육』. 동녘, 2008.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 장하준. 『국가의 역할』. 이종태, 황해선 역. 부키, 2006.
- 정환희. 〈다문화시대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재롬 배테. 『가치는 어디로 가는가?: 유네스코, 21 세기의 대화: 세계의 지성 49인에게 묻다』. 이선희, 주재형 역. 문화과지성사, 2008.
- 평택대 다문화센터. 〈미래사회의 다문화가족: 국제심포지엄 보고서〉. 2007.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다문화를 넘어 국제이해교육으로〉 대회보, 2009.
- Michal Walzer. 『관용에 대하여』. 송재우 역. 미토, 2004.
- Nathan Glazer.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서종남 외 역.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09.
- Paul Tayler. 『인증: 철학적 입문』. 강준호 역. 서광사, 2006.
- Ruth Benedict. 『문화의 패턴』. 이종인 역, 연암서가, 2009.
- C. Talyor,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 press, 1992.
- Dilger, S. C., *Developing policy and programs for multicultural art education: Curriculum and instruction responsive to cultural diversity*. *Art*

*Education*, Vol. 47(4), 1994.

Jacque Delors,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UNESCO Publications, 1996.

UNESCO, *UNESCO Guide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 UNESCO Publishing, 2006

UNESCO,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UNESCO Publishing, 2009.

논문투고일 : 2009. 10. 31

심사개시일 : 2009. 11. 10

게재확정일 : 2009. 12. 05

---

• 국 문 초 록 •

---

국내 거주 외국인 110만 시대를 맞아 다인종·다민족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주자 인권,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의 ‘더불어 사는 교육’은 한국의 다문화교육에 국제적 시각 전개에 일조를 할 것이다. 국제이해교육의 한 주제인 ‘다문화이해’는 한 사회의 조화와 평화로운 세계시민교육에 목표를 맞추고 있다. 2000년 유네스코는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자, ‘평화의 문화’ 확산을 통해, 5가지 주제 ‘세계화 문제’, ‘평화로운 세계’, ‘인권존중’, ‘다문화이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국제이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이해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편견차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모든 세계국가 대표들이 모여서 정책결정을 할 때, 제3세계의 입김이 들어가서 소수자의 인권, 평화, 존중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다문화이해는 유네스코가 목표로 하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분야이다. 이러한 교육적 관심은 국제교육에서 시작해, 평화교육, 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등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과 함께 다문화교육을 위한 유네스코 지침서를 내놓기도 하였다.

유네스코에서는 문화 간 이해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을 다문화교육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세계 속의 한국’을 구현하려는 노력에 비해, ‘한국 속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아시아 및 세계의 문화적·언어적·종교적 다양성은 창조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며 잠재적 원동력이다. 또한 21세기의 글로벌 이슈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의 파트너십과 협력, 조화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한국의 다문화이해교육과 더불어 아시아이해교육을 통해 한국인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균형을 갖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고

---

취할 수 있게 되리라 본다. 이주민들 역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한국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가치관 전환을 유발,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이들을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접촉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글로벌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국가적 브랜드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다문화이해 교육과 더불어 세계적인 이슈를 다루는 통전적인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윤리는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윤리이다. 기독교사회윤리는 세계를 단지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를 변혁하고자 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의 윤리는 이웃에 대한 책임성, 이웃과의 연대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기독교지식인들의 책임은 평화와 정의, 사랑과 상생의 세계적 시민의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서, 그에 대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세계는 다문화사회이다”. ‘세계 다문화교육’을 추진해야 한국의 다문화 교육 모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할 수 있다.

**주제어** :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상생, 기독교사회윤리, 유네스코

---